한국학연구 제71집 | 207~232쪽 | 2023.11.

한국독립당 광동지부 기관지『韓聲』연구

박향란* · 하동명**

〈차 례〉

1. 머리말
2.『韓聲』의 발간과 구성
3.『韓聲』의 중국인 필진 고찰
4. 韓中 필진의 연대의식 표출양상
5. 맺음말

[국문초록]

『韓聲』은 한국독립당 광동지부가 발행한 기관지이자 廣州 최초의 한국인 정당 기관지이다. 이 간행물은 제국주의 타파를 위한 약소민족 연대 촉구와 선전을 목적으로 한 중국어 기관지로서, 중한 혁명가들이 공동으로 진행했던 항일투쟁운동의 실천적 결과물이자 그들의 시대적, 역사적 인식을 반영한 소중한 자료이다. 하지만『韓聲』은 그동안 제3호만 전해져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다만 사료적 가치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韓聲』의 서지사항과 구성내용을 정리하여 고찰하고 기관지의 필진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많은 한인들이 필명을 사용하여 확인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한중연대에 있어 중국인 필진 소개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작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중국인 필진 楊康華(石栗), 雷通群, 陳燦章, 陳振祺, 震騏, 曾應鎏의 신분을 확인하고 한인 유학생들과의 교류와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1930년대 중산대는 사상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이 있는 학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였지만 실제로 의연히 중산대학생들과 유학생들 사이에는 암암리에 비밀독서회와 비밀 좌익단체 "맑스레닌주의 행동단"에 가입한 학생과 가까이 지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韓聲』의 한중연대의식의 표출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한국 저자들이 同病相憐이라는 동질감과 끔찍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일제 치하의 비참한 한국의 참상에 대해 고발한 반면, 중국인 필진은 일본의 본성을 간파하지 못한 자국민의 무지함과 개인이익을 위해 조국을 팔아넘긴 정치인들, 그리고 군벌들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고 중국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한중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廣東外語外貿大學校 亞非語言文化學院, 副教授
** 廣東外語外貿大學校 亞非語言文化學院, 碩士研究生

[주제어]『韓聲』, 한국독립당 광동지부, 기관지, 한중연대

1. 머리말

『韓聲』은 한국독립당 광동지부가 1932년 中國 廣東省 廣州에서 발행한 기관지이다. 이는 광주에서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결성되었던 최초의 독립운동 단체 - 韓國國民黨前衛總部[1]가 1932년 9월에 한국독립당 광동지부로 개편되면서 발행한 기관지로서, 광주 최초의 정당 기관지라는 점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와 연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한국독립당은 1930년 1월 상해에서 결성된 이후『韓報』,『韓報特刊』,『上海韓聞』,『韓聲』,『震光』,『韓國獨立黨黨報』,『通告』,『獨立評論』 등 기관지를 꾸준히 발간하면서 활동을 이어갔다.[2] 대다수 독립운동 단체가 남경으로 집결한 것과 달리 한국독립당은 광주에 제일 먼저 지부를 설치하였으므로 광동지부의 기관지『한성』은 한독당[3]이 항주로 이동한 후 발간한『震光』에도 중요한 이론적 근거로 되는 등[4]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한성』은 그동안 제3호만 전해져[5]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그 이후 발간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었다. 따라서『한성』은 다만 사료적 가치로 활용되어 한독당의 독립운동 행적과 한중연대의식 고찰, 그리고 기관지 주간 李斗山[6]의 창작활동 연구에 간간히 언급되었을 뿐이다.[7] 그러다가 2014년 趙銀景[8]에 의해 창간호와 제

1) 趙銀景,「중국 廣州지역 한인 독립운동 연구(1910~1948)」,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35쪽.
2) 韓詩俊,「중국 관내 독립운동과 신문 잡지」,『한국독립운동사연구』12, 1998, 12쪽.
3) 이하 "한국독립당"은 "한독당"으로 표기.
4) 박성순,「항일투쟁기 한국독립당의『震光』발간과 한중 연대」,『東洋學』61, 2015, 116쪽.
5)『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33, 국사편찬위원회, 2009.
6) 李斗山(1896-?)의 본명은 이현수이고, 필명으로 이연호, 이일정, 이우봉, 장일봉, 김항, 황신국 등을 썼다. 1919년 중국에 망명하여 조선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가담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간행물『한성』(1932),『동방전우』(1939) 등을 발행했으며『조선의용대통신』(1939) 편집위원회 주임을 맡았다. 이 외에도『최근한국열사전』, 연작 수필「회억」, 논설「한국의 혁명관」 등 다양한 작품들을 남겼다.
7) 시림,「망명과 선전(宣傳) : 중일전쟁시기 이두산의 문필활동과 의식변화」,『한국학논집』7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0, 139~167쪽; 최기영,「이두산의 재중독립운동」,『한국 근현대사 연구』

2·3호, 그리고 제3, 4월 합간호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만 해당 논문 역시 한인독립운동사 연구에 집중된 연구이기에『한성』의 내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한성』은 제국주의 타파를 위한 약소민족 연대 촉구와 선전을 목적으로 한 중국어 기관지로서, 중한 혁명가들이 공동으로 진행했던 항일투쟁운동의 실천적 결과물이자 그들의 시대적, 역사적 인식을 반영한 소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기관지『한성』의 서지사항과 구성, 그리고 기관지의 필진, 특히 글을 게재한 중국인들의 신분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나아가 그들의 연대의식이 어떻게 다르게 표출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

2.『韓聲』의 발간과 구성

1930년 1월 25일, 민족주의파 이동녕·안창호 등 28명이 상하이에서 한독당을 결성한다. 성원은 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과 흥사단 소속으로 구성됐고 理事長에는 李東寧이, 理事에는 趙琬九·安昌浩·李始榮·趙素昻·金九·金澈 등 6명이 선임되었다.[9] 한독당은 臨時政府를 중심으로 하는 民族主義者들이 임시정부를 지지·옹호하는 基礎政黨으로서 역할을 修行하고자 결성한 것인데[10]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전선을 통일하기 위해 결성한 정당이었다. 하지만 9·18사변과 제1차 상해사변, 그리고 윤봉길 의거 후 상해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한인들은 새로운 활동거점을 찾아야만 했다. 이 시기 광주는 남경국민정부와 합작한 직후였고 중국 내 어느 지역보다 항일 분위기가 고조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상해에서부터 광주로의 편리한 교통, 광주와 인접한 영국 조차지 홍콩이 활동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

42,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122~150쪽.

8) 趙銀景,「1930년대 중국 광주지역 한인 독립운동 세력의 형성과 변천」,『한국민족운동사연구』8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4, 301쪽.

9) 조범래,「韓國獨立黨研究(1930-1945)」,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68쪽.

10) 조범래, 위의 논문, 68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광주는 또다시 한인들의 관심지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상해의 한인 유력 인사들이 광주국민정부 측 주요 인사들이 南北和平會議에서 접촉하게 되었고, 광주에 거주하던 金朋濬 등이 상해의 한독당 본부에 결성을 요청하면서 광동지부가 세워지는데, 책임대표 金朋濬, 간사 楊宇朝, 李斗山 등이 주도하였고[11] 지부 위치는 廣州市 東山區 瓦窯後街 41번지로 되어 있으며[12] 결성 후 바로 기관지 『한성』을 발행함으로써 선전활동을 이어나갔다.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한성』은 1932년 11월부터 1933년 4월까지 총 4호를 마감으로 아쉽게도 李斗山과 金朋濬의 내분으로 폐간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13] 애초에 월간으로 매 15일에 발간할 기획이었으나 창간호는 다른 일정으로 연기되어 1932년 11월에 발간되었다.[14]

[표1] 『한성』 발간 상황

호수	발간일자	쪽수	비고
제1호	1932. 11.	37	
제2호	1932. 12. 15.	33	
제3호	1933. 1. 15.	33	
제4호	1933. 4	50	3월과 4월 합간; 13, 14, 15, 16쪽 빠짐

창간호에는 국민당 광동성 당부위원 陸匡文, 민주혁명가 黃明堂과 한독당 총무 李春山 등의 제사가 들어있으며[15] 기관지를 발행함에 있어 중국국민당

11) 趙銀景, 앞의 논문, 137~141쪽.
12) 조범래, 위의 논문, 78쪽.
13)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 국사편찬위원회, 1973, 572~573쪽. "광동 지부는 간부 간에 李斗山과 金朋濬과의 파벌 항쟁에 의하여 기관지 『韓聲』도 제3호 발간 후에는 休刊하고 분규 중 동년 9월 하순 이사장 宋秉祚가 同地에 출장하여 此의 해결에 노력하였다."
14) "本刊原定在十一月十五號出版, 但因別有延擱之苦衷, 到現在才能和讀者見面, 這是編者覺得非常抱歉的."「編輯後言」, 『한성』 1, 1932, 36쪽.
15) 제사를 보낸 인물들에 대해서는 시림의 논문에서 간단한 소개를 진행하였다.(시림, 「망명과 宣傳 : 중일전쟁시기 이두산의 문필활동과 의식변화」, 『한국학논집』 7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0, 143쪽.)

광동성 당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사회각계 인사들의 후원을 받아 간행되었다.[16] 『한성』은 창간호의 「창간사」에는 발간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이 마지막 투쟁의 전선에서 혁명의식을 고취하여 열혈민중들을 불러일으키고 약소민족과 연합하여 적을 말살함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당면한 중대한 사업이자 의무이다. 이런 사업은 반드시 宣傳의 힘을 빌어 민중을 자극하여 실현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선전은 혁명에 있어 극히 중요하고 또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우리는『한성』을 창간하여 혁명의 의무를 격려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두려움에 맞서는 정신을 고취할 것이다. 견강한 의지와 불굴의 정신으로 강산을 되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
> 3천만 한국민중들은 모두 힘을 합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적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다. 동방 각 약소민족들이여, 모두 연합하여 일제에 용감히 맞서라! 특히 우리와 서로 잇닿아 있는 중국 민중들이여, 우리를 이끌고 서로 도와 한중 양국 혁명의 승리를 이끄는 것이 우리의 중대한 책임이 아닌가? 모두들 함께 노력하자![17]

한독당은 민족의 독립과 국권의 회복을 위해서는 중국인들의 혁명정신을 고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이에 중국어로 간행물을 발행하여 선전활동을 추진하고 동방 약소민족과의 연대, 특히 중국인들의 혁명정신을 고취함으로써 역량을 총집중하여 일본제국주의를 물리치도록 호소하였던 것이다.『한성』의 이런 발간 목적은 그 내용구성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

16) 간행물 마지막 부분에는 따로 감사의 인사와 함께『한성』에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과 금액까지 자세히 밝히고 있다.(『한성』 1, 1932, 36쪽;『한성』 3, 1933, 32쪽;『한성』 4, 1933, 48~49쪽.)

17) 斗,「創刊詞」,『한성』 1, 1932, 1~2쪽. "我們在這最後鬥爭的戰綫, 鼓吹革命意识, 喚起热血民衆, 聯合弱小友邦, 使萬夫齊奮, 共赴殺敵, 期達最后勝利, 就是我們當面的重大工作和義务. 這樣的工作, 須先把宣傳的力量, 來要激起民衆而實現的 ; 質言之, 這宣傳的工作是革命綫上最要緊的急務 ; 吾人有見及此, 乃創刊這韓聲, 尽盡鼓革命的義務, 决取鞠躬盡瘁而乃已的大無畏精神, 願把鐵血收回河山, 這就我們的職志. 三千萬韓國民衆, 現正在公然隱然的戮力一心, 與敵拼命鬥爭之中, 願東方各弱小民族, 須聯合一起, 反抗這日本帝國主義的惡勢力吧!!尤其休戚相關的中國民樂, 提携我們, 彼此相扶, 期達韓中兩邦的革命成功, 這是不是我兩共同的重大責任麽! 大家努力罷!!"

[표2]『한성』 게재물 정리

호수	제목	저자	종류	비고
제1호	創刊詞	斗	논설	
	韓國的革命觀	李斗山	논설	
	日本壓迫韓人的變本加厲	謨	논설	
	與子同仇	陳燦章	논설	
	戰!是被壓迫民族的出路!	石栗	논설	
	韓國獨立運動之途徑	遠任	논설	
	國際聯合會調查團報告書中之『滿洲之朝鮮人問題』(轉載)	斗山	보고문	轉載
	怎樣獲得自由	歐蒂	논설	
	今後中韓之實際問題	李斗山	논설	
	中韓民軍聯合的意義	祺	논설	
	KOREA'S CRY	Lee Doo San	논설	영문
	日本帝國主義下之韓國現狀(1)	石川	논설	연재
	韓國獨立党OO支部告中國人士書	韓國獨立党00支部	논설	
	韓國獨立黨通信一則		소식	
	嗚呼, 李奉昌烈士!	(編者)	만사	
	韓國政治犯絕食消息		소식	
	編輯後言			
	鳴謝			
	標語			
	총편수			**19**
제2호	韓國革命方畧的管見(1)	李斗山	논설	譯文 연재
	抗日第一着之中韓聯結	雷通羣	논설	
	HOW TO ACCOMPLISH OUR INDEPENDENCE	Lee Doo San	논설	영문
	韓國與東北	遠任	논설	
	唯一的黨才有力量	金奇濟	논설	
	日本帝國主義下之韓國現狀(2)	石川	논설	
	日本侵略行為之矛盾性	嫉日	논설	
	從柏格森「變的哲學」說到中國人變的精神	劉漫生	논설	轉載

	動吧, 中國!	中國浪子	시가	李斗山[18]의 글
	東北事變與中韓革命之前途及我們應采之策略	石栗	논설	
	韓國革命的根據地問題	李斗山	논설	
	韓國革命戰士之消息		소식	
	日本軍機上重要地點施設		소식	
	最近二大重要消息		소식	
	編後語			
	標語			
	총편수			**16**
제3호	送舊迎新	李斗山	논설	
	餞送一九三二年!	山	시가	
	中韓協力抗日的緊急問題	雷通群	논설	
	韓國革命方略的管見(2)	李斗山	논설	譯文
	目下對於中韓同胞之希望	浩劫餘生	논설	
	日本帝國主義下之韓國現狀(3)	李石川	논설	연재 완료
	我們的敵人-日本帝國主義	文田	논설	
	中韓聯合	石栗	논설	
	中韓對日聯合戰線	蕾丁	논설	
	今後中韓應有的努力	依光	논설	
	中俄複交韓人應有的認識	淪落	논설	
	HOFE SPRINGS FOR THE BETTER IN OUR STRUGGLE	Lee Doo San	논설	영문
	重要消息		소식	
	本刊啟事			
	鳴謝			
	編輯緩言			
	標語			
	총편수			**17**
	三一運動時之獨立宣言書		논설	

18) '中國浪子'가 쓴「動吧, 中國!」이라는 시는 이두산이『남방청년』에서 발표한 이두산 본인의 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두산,「告中韓兩邦的同志」,『南方青年(南寧)』2권 13, 1934.4.15, 10쪽.)

제4호	三一運動之發生	李石川	논설	
	當三一紀念節贈給革命的戰士	石票	논설	(詩歌 轉載)
	從日本進攻熱河說到韓國獨立運動(為韓國三一獨立運動紀念而作)	同仇	논설	
	國家之起源	陳振祺	논설	
	韓日的前途	曾應鎏	논설	
	中日事件與東亞弱小民族之真正團結	震騏	논설	
	韓國革命方略的管見(3)	李斗山	논설	譯文 연재 완료
	日本帝國主義侵畧滿洲的原因和實況		논설	
	日本之政治與經濟的矛盾	風	논설	
	日本無產階級運動之急進	李石川	논설	
	解放!	黃玉麟	논설	
	重要消息		소식	
	日本大捕反戰分子		소식	
	鳴謝			
	編輯余言			
	最近美日兩國之航空比較		소식	
	총편수			**17**

『한성』에 게재된 글에서 소식, 만사, 鳴謝, 標語 등을 제외하면 모두 44편이다. 그 중 한국의 식민지 참상과 독립운동, 국제정세 분석, 중국 전쟁 상황과 반제 · 항일 독려, 한중 연대 문제와 세계 피압박 민족 연대 문제, 일본 침략 정세와 일본 국내 관련 소식 등 당시 정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논설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한중 연대와 세계 피압박 민족 연대를 언급하는 글만 27편으로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한다. 詩歌 세 편은 아픈 역사를 돌이키며 쓴 시, 그리고 혁명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것을 호소하는 시가이다.[19] 이외에 만주의 한국인 문제에 관한 보고문 한편,[20] 독립선언서 원문

19) 中國浪子, 「動吧, 中國!」, 『한성』 2, 1932, 25~27쪽; 山, 「餞送一九三二年!」, 『한성』 3, 1933, 1~2쪽; 石票, 「當三一紀念節贈給革命的戰士」, 『한성』 4, 1933, 7~9쪽.

한 편[21], 그리고 국가의 기원에 대해 철학적으로 해석하여 자기의 견해를 밝힌 글도 한 편 실려 있다.[22] 나머지 소식 10편은 주로 국내외의 時事, 희생 열사에 대한 애도, 그리고 체포된 志士의 사적으로 구성되었다.

3~4월 합간에서 13~16쪽이 현재 누락되어 있어 다른 글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지만 일본에 의해 압류된 역문[23]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앞뒤 글을 이어서 소개하고 있다. 다만 역문의 구성이 실제 중국어 원문과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어 비교할 필요가 있다.

[표3]

『韓聲』3月 4月 합간 중국어 원문	「輸入 支那文 出版物 譯文-『韓聲』3月 4月 合號」
三一運動時之獨立宣言書	一, 三一運動ノ獨立宣言書(譯略)
三一運動之發生 一·三一運動發生之遠因 二·三一運動發生的近因 三·三一運動與世界同情 四·三一運動之悲劇	二, 三一運動ノ發生
	三, 三一運動ノ世界ノ同情
	四, 三一運動ノ悲劇
當三一紀念節贈給革命的戰士	三一紀念節ニ當リ革命的戰士ニ贈ル
從日本進攻熱河說到韓國獨立運動(為韓國三一獨立運動紀念而作)	五, 日本ノ熱河進攻ノ論ジ韓國獨立運動ニ及ホス
國家之起源	六, 國家ノ起源
이하 同	이하 同

일본어 역문에는 李石川, 즉 李斗山의 아들 李貞浩가 쓴 글 「三一運動之發生」을 세 문장으로 나눠서 소개하고 있으며, 그 뒤의 글 「當三一紀念節贈給革命的戰士」는 순번도 없이 이어서 소개하고 있다. 원문의 구성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모습인데, 출판지원금 등 문제를 고려한다면 따로 출판을 더 했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압류 후 필요에 의해 따로 구성을 만든 것으로 보인

20) 斗山, 「國際聯合會調查團報告書中之『滿洲之朝鮮人問題』(轉載)」, 『한성』 1, 1932, 13~19쪽.
21) 「三一運動時之獨立宣言書」, 『한성』 4, 1933, 1~2쪽.
22) 陳振祺, 「國家之起源」, 『한성』 4, 1933, 17~26쪽.
23)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輸入 支那文 出版物 譯文-『韓聲』3月 4月 合號」, 『朝鮮出版警察月報』 第57號, 1933.4.20, 18~19쪽.

다. 역문에도 누락된 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 문장의 마지막 구절 “全世界被壓迫民族解放萬歲!”도 일치한 걸 보면 누락된 부분에는 처음부터 따로 다른 내용이 없었던 걸로 보인다.

3. 『韓聲』의 중국인 필진 고찰

『韓聲』은 중국어로 간행한 기관지이기에 이두산과 中山大學 한인 유학생들 외에, 중국인들의 문장도 많이 실려 있다. 다만 대부분 저자들이 신분 노출을 염려하여 필명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문제이다. 문장의 구사나 저자의 저술입장을 자세히 분석하면 국적은 구분이 가능하지만, 확실한 신분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도 李斗山, 李貞浩 등 이미 잘 알려진 인물 외에 중국인 필진에 대해서는 따로 고찰하지 않고 필명만 언급하였다. 본고에서는 우선 『한성』의 필진과 기고횟수를 정리하고 그들의 신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표4] 필진 명단과 기고횟수

필진	기고횟수	필명	비고
李斗山	14	斗, 斗山, Lee Doo San, 中國浪子, 山	한국인
李貞浩	5	李石川	한국인
楊康華	3	石栗	중국인
遠任	2		확인불가
雷通羣	2	雷通群	중국인
韓國獨立党00支部	1		독립당
金奇濟, 淪落, 謨, 祺	각 1편		한국인
曾應鑒, 陳燦章, 陳振祺, 浩劫餘生, 蕾丁, 劉漫生, 歐蒂, 震騏	각 1편		중국인
風, 黃玉麟, 嫉日, 同仇, 文田, 依光, 石票 (石栗의 오타일 수 있음.)	각 1편		확인불가
필진 수		25	

위 도표를 보면『한성』의 주간을 맡았던 李斗山의 글이 14편으로 제일 많고 다음 그의 아들 李貞浩의 글이 5편을 차지한다. 이두산은 수많은 필명을 바꿔서 글을 썼는데 제3호의 경우, 목차에서는 "餞送一九三二年"의 저자를 "斗"로 밝혔지만 실제 문장에서는 "山"으로 소개하고 있어 "山" 역시 이두산임을 확인할 수 있다.[24] 기관지의 주간으로서 이두산의 역할과 중국에서의 문필활동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도 고찰된 바가 있기에[25] 본고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金奇濟는 광동성 당안관 소장「解放前中大各社團綜合材料」[26]와「不逞團關係雜件 - 朝鮮人의 部 - 在支那各地 3」[27]에서 모두 軍醫로 소개하고 있는데 본명은 金復이다. 1921년 광주에서 설립된 최초의 한중연대단체인 中韓協會의 서무부장을 맡았던 金奇濟와 같은 인물인지는 확인이 더 필요하다. 이외의 한국인들은 필명만으로는 신분 확인이 어렵고 다만 "淪落", "謨", "祺" 등 일부 필진의 글에서는 한국인의 입장이 체현되어 있어 한국인임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필진 중 10명은 중국인임을 확정할 수 있고 그 중 일부 인물의 신분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기에 본고에서는 우선 중국인 필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중국관내 한국독립운동가들이 중국에서 어떠한 인물들과 접촉을 하였고,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중국인 필진에 대한 신분고찰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石栗이라는 필명으로『韓聲』에 매 회마다 기고했던 인물[28]은 바로 광주시 상무위원회 宣傳部長, 中共東南特委宣傳部長을 역임하고 1940년 10월 중공 홍콩시위 당서기 직을 맡으면서 마카오 지하당 조직까지 관리했던 楊康華(1915~1991)이다. 필자는 그의 자서전에서 1930년대에 한인 유학생 韓泰宙와 가까이 지내면서『한성』에 글을 투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

24) "餞送一九三二年",『한성』3, 1933, 1쪽.
25) 시 림, 앞의 논문, 139~167쪽; 최기영, 앞의 논문, 122~150쪽.
26) 崔鳳春,「國立中山大學韓籍學生考實 - 以20世紀30年代爲主」,『朝鮮 · 韓國歷史研究』, 2011, 304쪽.
27)「不逞團關係雜件 - 朝鮮人의 部 - 在支那各地 3」, "朝鮮人의 動靜에 관한 件 1".
28) 제4호의「當三一紀念節贈給革命的戰士」의 저자 石票 역시 石栗일 가능성이 있다.

> 1932~1933년에 『한성』에 글을 두 세편 투고한 일이 있었다. 이 간행물은 비정기 간행물로 중산대에서 공부하던 朝鮮籍 학생들이 발간한 것이다.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韓泰宙는 조선인인데 나와 친구들에게 원고를 부탁했었다. 내가 쓴 글의 내용은 모두 중조인민이 연합하여 항일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필명은 "石栗"과 "柘"를 사용하였다.[29]

楊康華는 1932년부터 1936년까지 中山大學校 법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간행물에 수많은 문장을 냈었고 레닌의 『사회주의와 전쟁』, 『국가와 혁명』, 스탈린의 『레닌주의 기초』 등 사회주의 이론서적을 번역하는가 하면 비밀독서회와 비밀 좌익단체 "맑스레닌주의 행동단"에 가입하여 공산주의 사상을 펼쳐 나갔다. 한인 유학생 한태주와도 서로 가까이 지내면서 맑스와 레닌의 저작을 탐독하였던 것이다. 1935년 12월 9일, 북경에서 학생들이 일제의 화북 침략에 반대하는 반일시위를 전개하자 楊康華는 학생들과 함께 광주에서 앞장서 항일시위에 나섰다. 이 시기 중산대학교 한인 유학생들도 함께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전해진다.[30] 이러한 사건들을 미루어 볼 때, 1930년대 중산대학 측에서 1927년 12월 중국공산당이 주도한 광주봉기에서 한인 유학생들이 활약했던 과거를 염두에 두고, 한독당에게 학생추천을 함에 있어 사상적으로 공산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였지만[31] 실제로 의연히 중산대학생들과 유학생들 사이에는 암암리에 공산주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강화와 가까이 지냈던 韓泰宙는 韓金綱, 韓泰岳, 韓泰周 등 異名을 사용하였는데 중산대학교 학적부에 따르면 法學院 经济系에 입학한 것으로 확인되지만[32] "民族革命黨員 李初生 事件"의 警察訊問調書[33]에는 政治科 학생으로 소개하고 있다. 1911년 2월에 태어났고 1916년 7월 상해로 건너가 上海仁成學校를 다녔는데 한인독립운동청년

29) 楊康華, 『楊康華回憶錄』, 廣東人民出版社, 2001, 391쪽.
30) 趙銀景, 앞의 논문, 156쪽.
31) 趙銀景, 앞의 논문, 144~145쪽.
32) 崔鳳春, 앞의 논문, 290쪽.
33)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6권, 「中國地域獨立運動 裁判記錄 4」, "李初生 訊問調書".

동맹 집행위원으로 지내다가[34] 1932년에 중산대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1936년, 중산대학교에 安偶生이 입학하면서 한인 청년들을 한국국민당으로 포섭하였는데 이때 민족혁명당 화남지부에 속했던 한태주는 한국국민당으로 당적을 옮긴다.[35] 한태주와의 인연으로 양강화가『한성』에 글을 실었단 사실을 감안한다면 확인이 어려운 필진들 중 한 명은 한태주일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여동생 韓泰寅의 남편이 李貞浩[36]라는 사실을 보더라도 충분히 글을 실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그의 독립운동 행적에 대한 추적도 앞으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抗日第一着之中韓聯結」(제2호),「中韓協力抗日的緊急問題」(제3호) 등 글을 투고한 雷通群(1888~?)은 저명한 교육사학가인데 광동 臺山 출신으로 일찍 일본 동경고등사범학교를 거쳐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학 석사를 마치고 귀국한 유학파이다. 귀국 후 國立音樂院, 廈門大學教育系, 南華學院에서 교수로 지내다가 항일전쟁시기 중산대학교 師範學院 교수, 광주대학교 교육과 교수 겸 주임을 역임했는데 역서로는『經濟學說史』,『群集社會學』, 저서로는『教育社會學』,『新興的世界教育思潮』 등이 있다.[37] 한인유학생들과는 중산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제1호에「與子同仇」를 발표한 陳燦章은 그 행적이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국민당 당원으로서 회의기록도 여러 편 작성하였고『新聲』,『新粵』,『新粵週刊』,『民治旬刊』 등 간행물에 문장을 발표하였으며[38] 小泉信三의『近世社會思想史大綱』[39]을 번역하고, 저서『馬克斯學說大綱』를 남긴 인물로 무력항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그가 손중산을 추모하여 쓴 글「孫中山革命活

34)『용의조선인명부』,「용의조선인, 23」, "韓金綱".
35) 趙銀景, 앞의 논문, 158쪽.
36) 崔鳳春, 앞의 논문, 302쪽.
37) 周川, 中國近現代高等教育人物辭典, 福建教育出版社, 2018, 第644頁.
38) 陳燦章,「向心運動」,『新聲』1, 1930, 107~113쪽; 陳燦章,「歐洲各國地權改革的趨勢」,『新聲』6, 1930, 43~176쪽; 陳燦章,「歐洲各國地權改革的趨勢(續)」,『新聲』7, 1930, 73~119쪽; 陳燦章,「廣東應如何準備與措施然後最能有裨於全域之應戰」,『新粵週刊』7~8, 1937, 39~41쪽; 陳燦章 · 李德輝,「抗日救國的唯一途徑 : 武力抵抗與經濟絶交 : 在二月八日紀念週中報告」,『民治旬刊』16, 1932, 24~29쪽; 陳燦章,「戰時金融統制之研究」,『勤勤大學季刊』1, 1935, 57~67쪽.
39) (日)小泉信三著, 陳燦章譯,『近世社會思想史大綱』, 東昇印務局, 1934.

動과 旅日華僑의 關係」[40]가 전해지고 있는데 손중산이 서거한 당시, 일본에서 유학을 했던 그는 광동학생동향회 대표 신분으로 손중산 추도회 籌備會 文書科 幹事를 맡은 바 있다.[41] 귀국 후 黃埔軍官學校 교관으로 일을 하다가[42] 1941년에서 1942년 사이 臺山縣 縣長을 맡기도 했는데 한인 유학생들과는 황포군관학교 교관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접촉이 있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4호에 글을 실은 陳振祺(≪國家之起源≫), 震騏(≪中日事件與東亞弱小民族之真正團結≫), 曾應鎏[43](≪韓日的前途≫)는 이 시기 모두 중산대학교 학생이었다. 陳振祺와 震騏는 중산대학교 법학원 정치과 정치학연구회 성원으로서 학회에서 간행한 『政治學論叢』에 정치사상과 정치활동에 관한 문장들을 싣기도 하였다.[44]

이외의 인물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1930년대 한독당은 중산대학교 교수와 학생들과 연대활동을 활발히 펼쳤다는 사실이다. 정당의 기관지라는 특성 때문에, 사회 각 계층 인사들의 글이 실려 있을 것이라는 추정과 달리, 이두산을 제외하면 사실 중산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의 글이 주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楊康華의 회억록을 보더라도 『한성』을 한독당의 기관지가 아닌 중산대학교 한인 유학생들이 꾸린 비정기 간행물로 기억하고 있다. 물론 확인이 어려운 인물들이 더러 있기에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양상은 그 시기 한독당 광동지부가 한인들의 중산대학 입학을 적극적으로 주선했던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 시기 교장으로 부임된 鄒魯는 신해혁명 당시 한인 중 처음으로 광주에서 활동한 金奎興과 친분이 있었던 인물로, 한국 독립운동에 누구보다 우호적이었다. 한인 유학생들은 중산대학에 입학하여 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西南政務委員會 교육부에서는 매월 30원 씩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등 특혜를 주었

40) 陳燦章 · 李勵文, 「孫中山革命活動與旅日華僑的關係」, 『廣東文史資料』(孫中山與辛亥革命史料專輯), 廣東人民出版, 1981, 20쪽.
41) 葛培林, 「永留浩氣在人間 - 1925年海內外悼念孫中山先生活動紀實」, 『中山文史』 第39輯, 政協廣東省中山市委員會中山文史編輯部, 1996.
42) 陳予歡, 『抗日烽火鑄軍魂』, 廣東人民出版社, 2020, 42쪽.
43) 「文學院中文係作文特課評次揭曉」, 『國立中山大學日報』, 1932년 12월 7일.
44) 張緊跟編, 『百年歷程 1905-2005中山大學的政治學與行政學』, 中山大學出版社, 2005, 84쪽.

던 것이다.[45] 『한성』에 투고한 필진들 대부분이 중산대 교수와 학생인 것도 이러한 이유였을 것이다.

4. 韓中 필진의 연대의식 표출양상

1) 일본 만행의 폭로와 고발

중국어로 된 간행물 발행의 궁극적 목적은 중국인들의 항일의지와 연대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방관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수많은 중국인들의 항일의지를 불태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同病相憐이라는 동질감과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따라서 李斗山과 李貞浩 등 한국인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과 식민지 한국인들의 참상을 고발하는 글들을 적극적으로 발표한다. 가장 대표적인 글은 바로 3회에 걸쳐 일제 치하 한국의 참상을 고발한 李貞浩(石川)의 「日本帝國主義下之韓國現狀」이다. 그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본질은 자본주의 시장의 확대에 있다면서 일본이 한국에서 자행한 착취와 만행을 정치적 압박, 경제 착취, 문화침략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다 설복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통계수치와 도표를 대량 인용하였으며,[46] 중국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기 위하여 일본인들이 자주 사용했던 10가지 고문방식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열거한다.[47]

이두산 또한 「韓國的革命觀」라는 글에서 일제 통치 하의 한국의 비참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어린 양 같은 한국을 포박하고, 한국의 문화, 정치, 경제, 교통 등

45) 趙銀景, 앞의 논문, 143쪽.
46) 石川, 「日本帝國主義下之韓國現狀(2)」, 『한성』 2, 1932, 12~17쪽.
47) 石川, 「日本帝國主義下之韓國現狀(1)」, 『한성』 1, 1932, 32~33쪽.

> 모든 기관을 빼앗아 조선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동양척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각종 조합 기관과 착취기관을 설립하여 토지를 빼앗고, 값싼 원료와 노동력을 획득하였으며, 고가의 공업 생산품으로 농산물들을 교환하는 등 나날이 한국을 잠식시키고 있다. 23년이 흐른 지금, 이 취약한 한국의 민중은 결국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뼈는 인삼뿌리처럼 가늘어지고 얼굴색은 풀떼기마냥 퍼렇게 된 국내의 동포들, 거리에 널린 아사자들, 건물 아래에서 배회하는 실업자들, 학교도 다닐 수 없는 수많은 아이들, 이천만 명에 달하는 굶주린 소작농들, 철창감옥에서 신음하는 수천만의 혈기에 찬 동포들,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무수한 걸인들, 타락자, 노동자, 농민, 극소수의 부농을 제외한 삼천 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들은 사지에 놓여 있다. 이는 모두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다. 다시 말해 전 민족의 모든 것,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모든 것이 파산되고 흩어지고 부서졌다.[48]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중일전쟁, 러일전쟁을 겪으면서 점차 자본을 축적해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하였다. 한국은 경제 · 정치 ·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일본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었으며 '민족의 모든 것들을' 약탈당하고 있었다. 이두산은 '전 세계 어느 제국주의 국가보다도 더욱 극악무도한' 일제의 침략본질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깊은 원망과 망국자로서의 고통을 그대로 중국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 작가들은 일제의 허위성, 반동성, 침략성을 폭로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 1931년, 일본은 '9 · 18사건'을 일으켜 만주 지역을 침공하여 점차 동북지역도 점령하였다. '9 · 18사변' 이후 동북지역에서는 항일 투쟁

48) 李斗山, 「韓國的革命觀」, 『한성』 1, 1932, 3~4쪽. "(日本)捕縛了這羔羊似的韓國, 把韓國的文化, 政治, 經濟, 交通等一切機關奪佔, 設置吮血的東洋拓殖會社, 幷設種種組合和其他搾取機關, 奪取土地, 獲得廉價的原料和勞働, 把高價的工業品, 奪換種種的農產品, 日復一日, 年復一年, 漸入蠶食, 已過二十三年餘的今日, 這弱小的韓國民生和其生存, 終瀕於那裏的絕地呢?徘徊於生耶死耶的關頭, 是目前的實情. …… 骨如麻根, 面作菜色的國內同胞, 載道的餓殍, 徘徊於屋沿廊下的失業者, 無校可上的成千類萬的失學者, 幾乎二千萬的動勞小作農業者的饑餓, 幾千幾萬的鐵獄呻吟的有血性的男女, 滿街遍巷的無數的乞人, 墮落者, 勞動者, 佃農者, 除其一部少數的富農者外, 三千余萬全人口的韓國全民, 竟到於死地, 站在危急一發之死線上, 這都是目下的實情, 眼見的萬確的事實. 質言之, 全民族的一切, 其在精神的物質的, 一概都被破產了, 一切都被離散了, 其一切都被零落了."

이 활발히 일어났지만 蔣介石의 이른바 "외세를 막자면 우선 내부를 안정시켜야 한다(攘外必先安內)"라는 국책으로 말미암아 국민군은 일제와의 정면 항전을 펼치지 못했다.[49] 따라서 항일담론은 1937년 7월 전면적인 항일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주류 시국담론으로 부상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한성』을 보면 중국 지사들이 일본의 횡포와 한국의 현실에 가슴 아파하며 일제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대중들의 반항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楊康華(石栗)의 글「東北事變與中韓革命之前途及我們應采之策略」은 일본이 동북사건을 일으킨 본질적인 이유는 大陸帝國의 환상을 실현하려는 데 있다면서 대외침략을 통해 국내갈등을 완화하고 경제위기를 해결하려는 일본의 본성을 폭로하고 민중들의 대일항전을 호소하였다.[50]

2) 자국민에 대한 비판과 항일의지의 고취

한국 저자들이 일제 치하의 비참한 한국의 현실을 글로 보여줌으로써 중국인들의 항일의지를 촉구했다고 하면, 중국인들은 일본의 본성을 간파하지 못한 자국민의 무지함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적극적인 항일을 호소하였다. 震瞿과 雷通群은 일제의 침략에 무감각하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중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면서 항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震瞿는 "제국주의가 중국의 문호를 연 이래 중국은 줄곧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했으며[51] 雷通群 또한 중국인들이 일본의 동북침략을 방치한 데 대한 분노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우리 나라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건망증이 심하단 말인가? 일본이 한국을 먼저 멸망시킨 다음 중국을 멸망시킬 속셈이라는 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먼저 한국이 멸망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이제는 부대를 퇴거하여 동북 지역이 함락당하는

49) 김병민,「'조선의용대' 관련 항일서사에 대한 문화적 고찰」,『통일인문학』72, 2017, 111쪽.
50) 石栗,「東北事變與中韓革命之前途及我們應采之策略」,『한성』2, 1932, 27~28쪽.
51) 震瞿,「中日事件與東亞弱小民族之真正團結」,『한성』4, 1933, 27쪽.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가장 슬픈 일은 생각이 아둔하고 무감각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망했지만 그의 독립지사들은 용감하게 적을 향해 무기를 들고 조국 광복을 위해 생사를 불구하고 싸우고 있으니 이는 몸은 죽어도 마음은 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그 반대로 몸은 죽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죽었다. 张學良이 바로 '마음이 죽은' 전형적인 인물이 아닌가?[52]

雷通群은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먼 이국땅까지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항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인들의 용기에 감탄하며 후퇴하기에만 급급한 '마음이 죽은' 자들을 비판하고 조국의 앞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또한 「中韓協力抗日的緊急問題」에서는 동북 함락의 공범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괴뢰정부와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국가이익은 외면한 매국노, 군벌에 대해서도 맹렬한 비판을 가하였다.

교활한 일본은 매국노를 매수하고 괴뢰정부를 수립하여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으니 일본은 이 모든 걸 웃으면서 지켜보고 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청대 유신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실의(失意)에 찬 정치인들과 군벌들도 단지 중국 정부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만주국의 일을 기꺼이 처리하며 일본인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다.……이토록 애국심을 상실한 앞잡이들은 자기의 이익만 좇아다니다보니 언제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돌볼 생각이나 있겠는가?……[53]

52) 雷通群, 「抗日第一着之中韓聯結」, 『한성』 2, 1932, 7쪽. "奈何國人事事健忘, 昧於假途滅號之故智, 既坐視韓亡不救於前, 復按兵壁上, 坐觀東北之危局而不救於後也!夫哀莫大於心死, 身死則次之. 韓既知亡矣, 而該國獨立黨人, 懷博浪之錐, 藏魚腹之劍, 出生入死, 直欲朝及於敵人之腹而後快, 徇可謂身雖死而心仍不死者也!若乃中國, 適得其反, 身雖未死而心已死焉. 張學良者, 寧非「心死」者之代表歟?"

53) 雷通群, 「中韓協力抗日的緊急問題」, 『한성』 3, 1933, 2~3쪽. "但其狡猾處却能收買一般漢奸, 為虎作倀, 建樹一個僞組織的傀儡政府, 俯首甘為之奔走, 彼方竟因此轉抱樂觀. 最可慮者, 不但亡清的遺老, 多因利令智昏, 竟引秦師而覆宗國, 且關內尚有無數的失意政客或軍閥, 祇因與中國政府意見不同, 甘心趨走於日人包辦的滿洲國之下, 以討噉飯地. …… 此輩喪盡愛國心的虎倀, 見利則趨之惟恐不足, 復何暇計及敵人之黥劉其父母妻子, 破壞其祖先廬墓?"

수많은 정치인과 군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리낌없이 나라를 팔아 넘기는가 하면 정부와 자신의 견해가 다르다 하여 바로 일본인의 앞잡이가 되어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으니 실로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동북함락도 이러한 방관과 무책임으로 인해 초래된 비극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두산이 大同主義를 주장하며 중한연대를 강조한 반면, 중국인들은 중국의 역할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항일정신을 고취하였다.

> 위대한 중국은 응당 동아시아의 질서를 바로 잡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조선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청나라의 정치를 이어받아 제대로 된 통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청은 썩어빠진 말년에 조선을 일본 제국주의의 손아귀로 몰아넣었다. 지난날 중국은 이미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새로운 중국정부가 수립되어서도 동아시아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약소국가들이 식민지로 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침략을 당하고 있다. 이는 원래 중국인들의 뜻이 아니라 군벌들의 장난임을 알아야 한다. 동아시아 약소국가들의 해방은 모두의 단결을 기대하고 있지만 중국은 언제 내부모순을 해결하고 진정한 민심을 대변할 것이며 언제면 진정으로 약소국가들과 합심하여 제국주의와 맞서 싸우겠는가?[54]

『한성』에 글을 발표한 중국인들은 중국이 동아시아 약소국가를 돕고 동아시아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한국의 국권상실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자국민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동시에 중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면서는

54) 震騏, 앞의 간행물, 28쪽. "但是一個偉大的中國, 本來應該負起東亞的公正人的責任, 但是現在連個很有歷史關繫的朝鮮都幫忙不得, 這都是因為繼着前清起來的政治, 未能真正勵精圖治的緣故. 亡了的滿清在昏朽的末年, 把朝鮮摧入日本鉄蹄之下. 這已經是中國的罪過了, 但是新興的中國政府, 都未能盡為這個東亞大國表現出應有的精神, 把弱小民族拯救起來, 甚且自己都在帝國主義的鞭撻之下; 須知這都不是中國人民的本意, 乃是一些假冒民意的軍閥在糊開. 故此, 東亞的弱小民族的重興, 端賴大家團結, 但是中國在什麽時候會有内部清平, 會有其正代表民意政府, 真正的來和其他的弱小民族團結以打倒帝國主義呢?"

한중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3) 약소국가와의 연대 모색

『한성』의 필진들은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 약소국가들과의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전 세계 피압박민족들이 함께 연합하여 제국주의 침략에 맞설 것을 호소하였다.

歐蒂는 「怎樣獲得自由」라는 글에서 한국의 혁명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언급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동방 약소국가들과 연대하자는 것이었다. "동방 약소민족의 연대의 힘을 확대해야한다. 혼자의 힘 - 즉 한국 민족 전체를 모으는 힘은 필경 식민지와 반식민지를 하나로 묶는 힘보다 박약하다.[55]"라고 하면서 동방 약소민족과 연합하여 반제전선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정호(石川)도 「日本帝國主義下之韓國現象」에서 "한국 혁명운동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반드시 광범위한 군중이 함께 참가해야 하며, 일제가 공동의 적임을 인식하고 함께 분투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억압받는 민족의 혁명운동을 연대할 필요가 있다."[56]고 강조하였다.

양강화(石栗) 역시 약소민족의 연합을 위해서는 중국과 한국의 연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한 양국은 지리적으로 잇닿아 있고 같은 글을 사용하고 같이 피를 나눈 사이로 역사적으로 항상 서로 도우면서 지내왔고 모두 같은 적을 갖고 있기에", "세계 약소민족의 연합은 반드시 이미 연합의 조건을 구비한 중국과 한국이 먼저 연합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57]면서

---

55) 歐蒂, 「怎樣獲得自由」, 『한성』 1, 1932, 22쪽. "擴大東方弱小民族的大聯合的力量. 單獨的力量 - 聚集全體韓國民眾的力量, 總比聯結殖民地和半殖民地成為一體的力量來得很少. 準此, 聯合東方弱小民族, 擴大反帝戰線, 也是一種急不容緩的要務."

56) 李石川, 「日本帝國主義下之韓國現象」, 『한성』 3, 1932, 11쪽. "這種的(韓國革命)運動要順利進行, 必須有廣大的群眾參加, 更加要認識共同之敵體, 共同奮鬥. 所以在世界上一切被壓迫民族之革命運動, 有切實聯合之必要."

57) 石栗, 「中韓聯合」, 『한성』 3, 1933, 19쪽. "中韓兩國, 以位置言, 同是密邇的隣國 ; 以民族言, 又是同文同血 ; 以歷史言, 兩國都是很要好的友邦, 時常互助 ; 以環境言, 彼此都有共同的大敵-不共戴天之仇的日本帝國主義——同時是被壓迫的弱小民族!所以, 弱小民族的聯合, 必須由已具備了聯合條件的中韓, 首先聯合起來, 然後才易成功!因為現在世界上弱小民族, 還沒有實的聯合. 中韓聯合, 可以給世

중한연합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전 세계의 약소민족이 함께 연합하여 제국주의 집단을 향해 결사적으로 싸워야만 "인류평등, 世界大同"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黃玉麟의 「解放!」은 세계 피압박민족 연합전선의 중요성을 사회 발전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는데 "세계 억압받는 민족들, 예컨대 조선, 인도, 안남, 아프리카인 등과 연합하여 각 자본주의 국가에서 착취당하는 노동군중들과 함께 제국주의에 맞서 결사적으로 싸워야 한다"[58]고 지적하면서 "우리의 사명은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사회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것"[59]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호(石川) 역시 「日本無產階級運動之急進」라는 글에서 일본제국주의 국가에서의 프롤레타리아계급의 투쟁에 주목했다. "현재 일본의 프롤레타리아혁명운동은 이미 매우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중 측면에서는 이미 자신의 지위와 부르주아에 대한 관계에 대해 인식하고 계급의식이 보편적으로 확산되었다.……"[60]고 말하면서 일본의 프롤레타리아혁명은 "한국의 독립운동이나 중국의 반제운동에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에", "일본프롤레타리아계급의 혁명운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의 혁명운동이 지속될 것을 바라야 된다."[61]고 하였다.

界上弱小民族一種興亡!從中韓的聯合, 推演而至全世界弱小民族的聯合!"

58) 黃玉麟, 「解放!」, 『한성』 4, 1933, 46쪽. "我們被壓迫被剝削的人們, 在革命的立場上, 不應歧視了我們的兄弟, 我們要聯合起世界被壓迫的民族如朝鮮, 印度, 安南, 非洲黑人等, 與各資本主義國度裏被剝削的勞動群眾對帝國主義作殊死戰."

59) 黃玉麟, 위의 간행물, 46쪽. "我們的使命是打倒帝國主義, 是把社會推進一個新的階段去."

60) 李石川, 「日本無產階級運動之急進」, 『한성』 4, 1933, 44쪽. "現在日本的無產階級革命運動已經是很激烈了, 民眾方面, 已覺醒自己的地位和對資產階級的利害關系, 而階級的意識, 非常的普遍起來."

61) 李石川, 위의 간행물, 44쪽. "他們……不過對韓國的獨立運動或中國的反帝運動, 有間接的或直接的影響.", "在今日我們除註意日本無產階級的革命運動外, 還要鼓吹他們勇往直前的義務."

5. 맺음말

『韓聲』은 광주 최초의 정당 기관지이며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연대의식을 집중적으로 보여준 실천적 결과물이다. 비록 4호를 마감으로 폐간되었지만 한중연대를 강화하고 중국인들의 혁명정신을 고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중산대 한인유학생들의 이러한 간행물 선전활동은 그 뒤로 『勇進』, 『光』과 같은 간행물 출간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간행물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지 못한 상황이다. 광동지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청년 인재 양성이었기에 그들은 광동 당국과 중산대학의 협조를 얻어 광주로 오는 한인들의 입학을 적극적으로 주선하였다. 이 시기 교장으로 부임된 鄒魯는 신해혁명 당시 한인 중 처음으로 광주에서 활동한 金奎興과 친분이 있었던 인물로, 한국 독립운동에 누구보다 우호적이었으며 한독당의 주선으로 무료 교육에, 보조금까지 받는 특혜가 주어지면서 『한성』은 중산대 교수와 학생들 중심으로 필진을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한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필진도 중산대 교수와 학생들 중심이었던 것이다. 현재까지 중국관내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에 대한 논의는 중국이라는 지역적 특징에 주목하여, 광주에 유학 온 한인학생들의 신상정보와 행적을 밝히는 작업에 치중하였고[62] 이미 어느 정도 성과도 축적되었다. 하지만 중국관내 한국독립운동가들이 중국에서 어떠한 인물들과 접촉을 하였고,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중국인 필진에 대한 신분고찰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작업이다. 특히 『韓聲』의 경우, 필명을 사용하여 신분확인이 어려운 한인들이 많다보니, 실명을 밝힌 중국인 필진의 신분과 행적부터 추적하는 작업을 선행하게 되었다. 楊康華(石栗), 雷通群, 陳燦章, 陳振祺, 震騏, 曾應鎏 등 중국인 필진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행적을 고찰 한 결과, 그들 역시 중산대 교수와 학생들 중심이었고, 1930년대 중산대는 사상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이

62) 魏志江, 「중산대학과 한국독립운동의 관계」, 『한국근현대사연구』 40,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최기영, 「1930년대 중산대학과 한국독립운동」, 『진단학보』 99, 진단학회, 2005; 최봉춘, 「중산대학과 1920년대 조선인의 혁명운동」, 『사학연구』 48, 한국사학회, 1994.

있는 학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였지만 실제로 의연히 중산대학생들과 유학생들 사이에는 암암리에 비밀독서회와 비밀 좌익단체 "맑스레닌주의행동단"에 가입한 학생과 가까이 지냈었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중연대의식의 표출양상에 대해서도 한국인과 중국인을 갈라서 비교 고찰해 본 결과, 한인들이 同病相憐이라는 동질감과 끔찍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일제 치하의 비참한 한국의 참상에 대해 고발한 반면, 중국인들은 일본의 본성을 간파하지 못한 자국민의 무지함과 개인이익을 위해 조국을 팔아넘긴 정치인들과 군벌들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한 동시에 중국의 정신과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한중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20년대 황포군관학교, 중산대학에서의 한인 유학생 입학특혜를 시작으로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광주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들의 남긴 자료의 발굴과 소개는 앞으로도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간행물 서지사항과 전체 필진의 고찰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이두산, 이정호 등 특정인물의 전후 사상변화까지는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필명을 사용하여 확인이 어려운 인물이 꽤 되어 그들 중에 다른 약소국가의 저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찰을 못하였다.『한성』이 후기 간행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광주에서의 독립운동가들의 창작활동 양상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앞으로의 과제로 미루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國立中山大學日報』, 1932년 12월 7일.
『韓聲』 1~4, 1932~1933.
『南方青年(南寧)』 2권 13, 1934.4.15.
「輸入 支那文 出版物 譯文 - 『韓聲』 3月 4月 合號」, 『朝鮮出版警察月報』 第57號, 1933년 4월 20일.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3, 국사편찬위원회, 2009.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 국사편찬위원회, 1973.

陳予歡, 『抗日烽火鑄軍魂』, 廣東人民出版社, 2020.
葛培林, 「永留浩氣在人間 - 1925年海內外悼念孫中山先生活動紀實」, 『中山文史』 第39輯, 政協廣東省中山市委員會中山文史編輯部, 1996.
楊康華, 『楊康華回憶錄』, 廣東人民出版社, 2001.
張緊跟編, 『百年歷程 1905-2005中山大學的政治學與行政學』, 中山大學出版社, 2005.
周川, 中國近現代高等教育人物辭典, 福建教育出版社, 2018.

김병민, 「'조선의용대' 관련 항일서사에 대한 문화적 고찰」, 『통일인문학』 72,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_____, 「망명 문인 이두산의 문학사상과 창작특징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 192, 국어국문학회, 2020.
韓詩俊, 「중국 관내 독립운동과 신문 잡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8.
魏志江, 「중산대학과 한국독립운동의 관계」, 『한국근현대사연구』 40,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박성순, 「항일투쟁기 한국독립당의 『震光』 발간과 한중 연대」, 『東洋學』 6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5.
趙銀景, 「중국 廣州지역 한인 독립운동 연구(1910~1948)」,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8.
시 림, 「망명과 선전(宣傳) : 중일전쟁시기 이두산의 문필활동과 의식변화」, 『한국학논집』 7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0.
조범래, 「韓國獨立黨研究(1930-1945)」,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최기영, 「1930년대 중산대학과 한국독립운동」, 『진단학보』 99, 진단학회, 2005.
_____, 「이두산의 재중독립운동」, 『한국 근현대사 연구』 42,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최봉춘, 「중산대학과 1920년대 조선인의 혁명운동」, 『사학연구』 48, 한국사학회, 1994.

韓國獨立黨廣東支部機關報≪韓聲≫研究

朴香蘭* · 何東明**

≪韓聲≫是韓國獨立黨廣東支部在廣州創辦的第一份韓國政黨機關報。該刊物以宣傳打敗帝國主義，督促聯合弱小民族為辦刊宗旨，是中韓革命家共同進行抗日鬥爭運動的實踐成果，也是反映他們的時代認識和歷史認識的珍貴資料。但由於此前學界對≪韓聲≫的研究大多只停留在史料研究上，而未能對其進行一個系統性的分析。因此，本文首先對≪韓聲≫的發行情況和其構成內容進行了整理和考察。其次，考察了該機關報的作者身份及其活動蹤跡。為了更好地分析中韓聯合意識，本論文集中考察了楊康華、雷通群、陳燦章、陳振祺、震騏、曾應鑒等中國作者的身份，並討論他們與韓國留學生之間的交流情況，試圖闡明他們對韓國留學生產生的影響。結果發現，1930年代中山大學雖強調不能接受共產主義思想的留學生入學，但仍有部分韓國留學生與有共產主義傾向的學生密切交往。此外，本文還對≪韓聲≫的中韓聯合意識進行了研究，發現韓國作者為了喚起中國人民“同病相憐”的認同感和危機意識，致力於告發日本帝國主義統治下的朝鮮慘狀，而中國作者則尖銳地批評了未能看透日本的侵略本質、為了個人利益而出賣祖國的政治家和軍閥，同時強調了大國的精神和責任，由此闡發了中韓聯合的必要性。

[关键词]『韓聲』，韓國獨立黨廣東支部，機關報，中韓聯合

논문투고일 : 2023년 10월 14일 ‖ 심사완료일 : 2023년 11월 9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11월 26일

* Associate Professor of Faculty of Asian and African Languages and Cultures,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Master's degree student of Faculty of Asian and African Languages and Cultures,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